[UCI]I804:24011-200000233191

2006년 8월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전공)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방 명 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Foster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Ego-Identity.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방 명 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指導敎授　　한　경　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방　　명　　진

방명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v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1

II. 이론적 배경 ····· 4
1 부모의 양육태도 ····· 4
1) 양육태도의 개념과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4
2) 양육태도의 유형 ····· 6
2. 자아정체감 ····· 11
1) 자아정체감의 개념 ····· 11
2) 자아정체감의 발달 ····· 14
3)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의 특징 ····· 15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 17

III. 연구방법 ····· 19
1. 조사대상 ····· 19
2. 조사도구 ····· 20
1)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 20
2) 자아정체감 척도 ····· 21
3. 연구절차 ····· 23
1) 예비조사 ····· 23
2) 본 조사 ····· 23
4. 자료 분석 ····· 24

Ⅳ. 연구결과 ····· 24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일반적인 경향 ····· 24
1)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반적 경향 ····· 24
2) 자아정체감의 일반적 경향 ····· 26
2.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 26
1)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 26
2) 부모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 28
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 29
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 ····· 31
1)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 31
2)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아정체감 ····· 33
3)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정체감 ····· 34
4.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및 영향 ····· 36
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 36
(1)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버지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 36
(2)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 38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40
(1)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성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40
(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성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43
Ⅴ. 결론 및 제언 ····· 45

[참고문헌] ····· 51
[부록] ····· 56

표 목 차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19
[표 2]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 21
[표 3]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 22
[표 4]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반적 경향 ····· 25
[표 5] 자아정체감의 일반적 경향 ····· 26
[표 6] 조사 대상자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 28
[표 7] 부모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 29
[표 8]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 30
[표 9] 조사 대상자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 32
[표 10]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아정체감 ····· 33
[표 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의 자아정체감 ····· 35
[표 12]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버지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 37
[표 13]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 38
[표 14]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성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41
[표 1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성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43

그 림 목 차

[그림 1] Belsky(1984) 부모역할의 영향요인에 대한 과정모델 ····· 5
[그림 2]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 6
[그림 3]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 7
[그림 4] Becker의 양육태도 모형 ····· 8
[그림 5] 자애로움과 엄격함의 두 차원에 의한 네 가지 부모유형 ····· 9

부 록

[부록 1] 질 문 지 ····· 56
[부록 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 64
[부록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 65
[부록 4]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66
[부록 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67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Foster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Ego-Identity.

Myoung- Jin Bang
Advisor : prof. Kyung-Soon Han
Major in Technology and Home-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foster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ego-identity by observing the influence of parental fostering attitude on the ego-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as adolescents. Sex,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state of employment of mother were investigated as demographical variables to determine if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al fostering attitude and students' ego-identity by the demographical variables, correlation among sex, parental fostering attitude, and students' ego-identit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ninth-graders from a middle school in Gwangju in November and December in 2005; then, a total of 49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AS Package Program.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determined by Cronbach α coefficient, along with such concrete analysis methods as frequency, percentage, th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ents had positive(affectionate, autonomous, achievement-oriented rational)perception of parental fostering attitude and the positive ego-identity.

Second, female student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s' affectionate, autonomous, and rational fostering attitude than male students

did.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or the state of employment of mother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fostering attitude.

Third, female students showed a higher rate of general ego-identity development, intimacy, and self-acceptance than male students did.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students' ego-identity while students whose mother was a college graduate showed the higher rate of initiative, one of the ego-identity factors. As for students' ego-identity by the state of employment of mother, students whose mother was a house-maker showed the higher rate of self-acceptance and intimacy, one of the ego-identity factors.

Fourth, there was so strong correlation among sex, parental fostering attitude, and students' ego-identity. Father's fostering attitude had no influence on the general ego-identity for both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but affected each of its factors. Mother's fostering attitude affected the achievement-oriented attitude in the general ego-identity for both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and also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each of its factor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uture studies on variables affecting formation of the ego-identity for adolescents need to conduct wide-ranging sampling to make a comparative research by developmental stages and regions and investigate parents and children separately to examine fostering attitude perceived by parents and felt by children.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variables to include such socio-cultural variables as school life, peer relations, and the mass media.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환경은 부모와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며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양육자이며 자녀에게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 가정은 부모와 가족 구성원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자녀의 최초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력 아래 성장하게 되므로 부모가 부모됨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하다.

자녀는 부모가 어떤 양육태도를 가지고 양육하는 가에 따라 자녀의 성격형성, 가치관형성, 인격형성 및 자아정체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하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어떤 부모, 어떤 훈육, 어떤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특성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갖는 특성은 성장해서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성장기 동안 부모가 조언자, 친구, 보호자의 역할을 하므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가정의 일차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고 가족간의 대화 단절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등은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장기에서 성인기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적인 정서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면서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된다. 청소년 시기는 가치관이나 인격이 형성 되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 시기에 자아정체감을 건전하게 발달시켜 자기 존재감과 의미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일은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아정체감이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중심과제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등의 실존적 물음에 대한 개인 내적 대답이 바로 자아정체감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국, 1995).

자기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자아정체감은 청소년들의 인성형성에 핵심이 되며, 개인의 기본적인 준거의 기초로서 자신의 신체적, 성적, 지적, 가정적, 직업적, 사

회적 여건에 따른 자기 존재의 본질이나 위치 역할 등을 파악하여 적응학습을 실천함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윤봉숙, 1984).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자각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들의 눈에도 가장 의미 있어 보이는 역할들을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 할 때 확립되어 간다.

이처럼 자아정체감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발달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환경 요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유형, 또는 모의 취업여부, 가족구성원과의 관련을 고찰한 권순명(1993), 송설희(1994), 공계숙(2005), 김형태(1989), 이화림(2001), 김윤숙(1989), 고현주(2002), 오경옥(1986), 윤명숙(1988)과 Zuckerman(1958), Hock(1964), Cooper와 Grotevant(1989)의 연구 등이 있는데 지금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 관련되는 조건은 부모에 대한 동일시, 양육방식의 차이, 정체감 선택의 범위, 지각된 모델 인물의 유용성과 관여의 정도, 가정, 학교 및 또래 집단의 사회적 기대, 이전의 발달과업의 수행 여부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이승국, 1995에서 재인용)

따라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을 살펴 볼 때 청소년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대부분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이승국, 1995; 류승림, 1998; 이화림, 2000).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근거로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및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하며 더불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4-1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4-2 부모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개념과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녀는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성장기를 부모의 영향 아래서 자라게 되고 자녀들의 신체적 성장, 심리적 발달, 지식습득, 직업선택 및 사회적 적응을 위한 능력의 토대가 가족 안에서 구축되어진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는 자녀들의 성격형성, 사회화, 습관, 가치관 형성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과 문화 및 사회기관이 자녀들의 성장과 인격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족에 속해 있는 한, 부모와의 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로 정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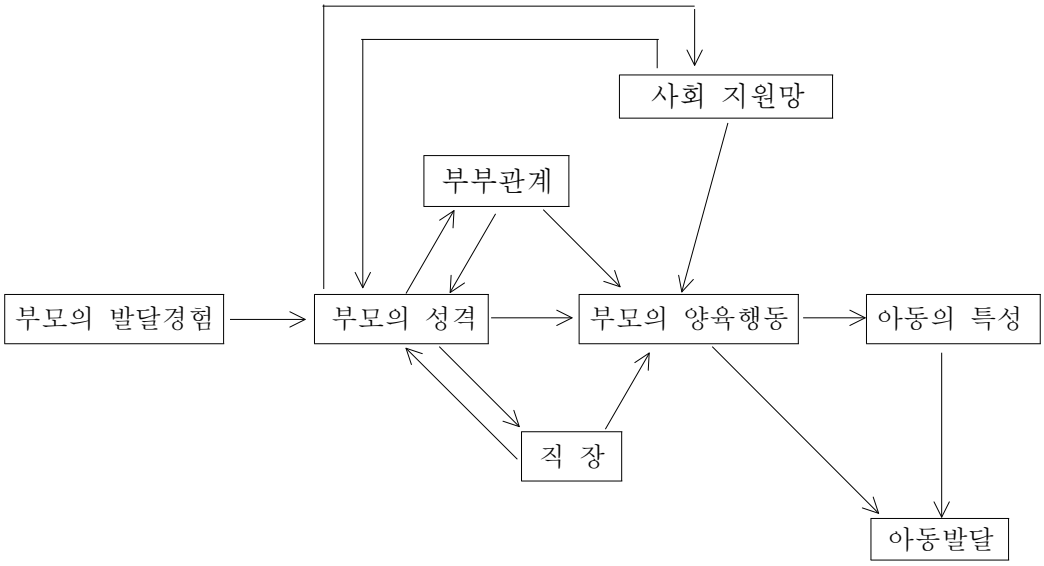
함정숙(1981)은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나타나는 일반적,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며 권순명(1993)과 송설희(1994)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외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한다.

유안진(1987)은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칠 때 나타내는 방향성과 감정적 색조를 지닌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경향으로, Sears(1995)는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방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하였다(공계숙, 2005).

Child(1963)는 양육태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 둘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인간의 인성측면 즉 공격성, 의존성, 성취동기 같은 것을 정의적 내지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관점이다. 이 정의적 태도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가 행하는 사회화 기술로 아동의 반응양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보는 입장으로 이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

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방향성이요, 반응양식(Fishbeion, 1975)으로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을 크게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한다(공계숙, 2005에서 재인용).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모의 영향과 자녀의 영향과 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정현숙 외, 2001). 첫째,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자신의 원가족에서의 발달적 경험과 부모의 성격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자녀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과 연령이 영향을 주는데 자녀의 영향은 한방향으로 부모에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양방향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황적 요인으로 부부관계, 사회적 지원망, 직업, 자녀의 수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부부관계는 결혼생활의 만족도로 양육태도에 영향을 준다. 또한 친구나 친인척 및 이웃 등 사회적 지원망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며 부모의 직업에 대한 태도는 부모들의 자아 개념과 연결되므로 부모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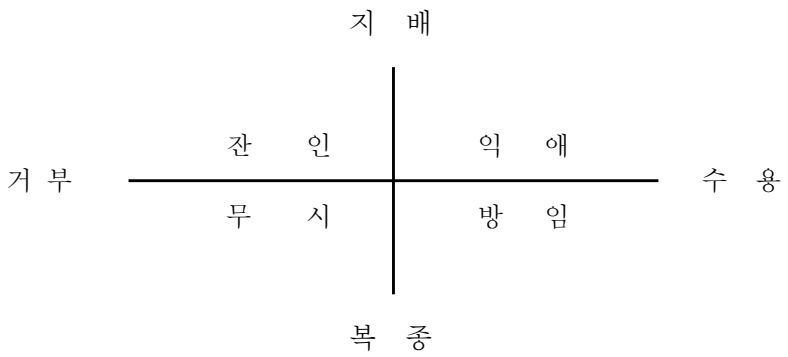


[그림 1] Belsky(1984) 부모역할의 영향요인에 대한 과정모델

2) 양육태도의 유형

양육태도를 분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양육행동 요소를 양극적인 개념에 의하여 몇 차원으로 구분한 후 각 차원의 대립된 행동요소들을 조합하여 양육태도를 분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양육행동 특성들을 실태조사에 의하여 수집한 후 통계적인 요인분석법을 적용하여 양육태도를 몇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 한 사람은 Symonds(1939)로서 임상적 경험에 의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수용적, 지배적-복종적의 2가지 요인 축에 의해 제시하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분류해서 거부적 태도(rejection), 익애적 태도(overindulgence), 과잉보호적 태도(overprotection), 엄격권위적 태도(overstrictness & orerauthority), 포부적 태도(parental ambition), 의존적 태도(parental overdependence), 애증적 태도(parental ambivalence)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적대적, 거부적, 권위적, 통제적 양육태도에서 자란 자녀들의 경우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자극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게 되며, 심리적 부담의 증가와 창의성 및 자주성의 발달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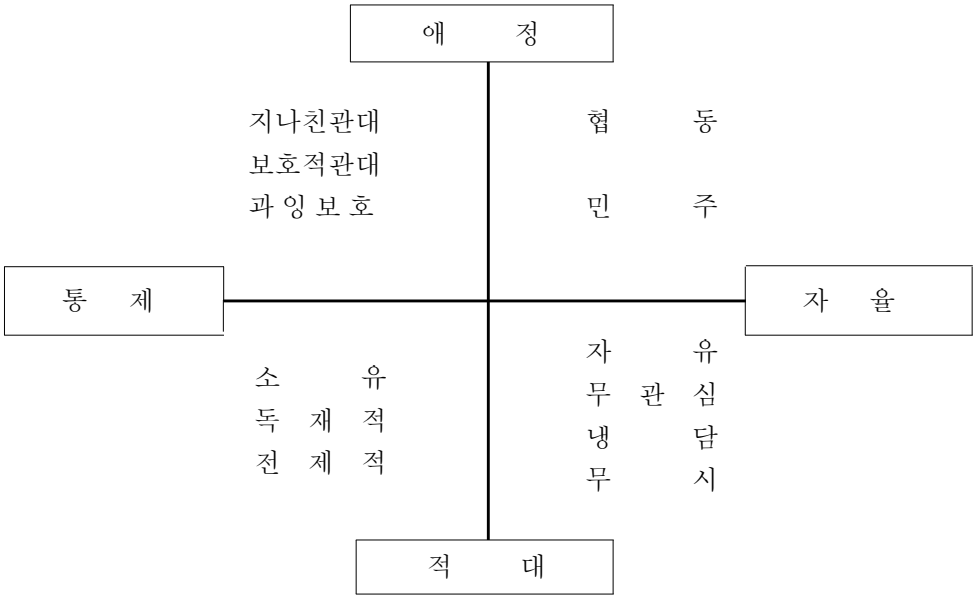
[그림 2]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Hurlock은 포부적 태도(parental ambition), 과잉보호적 태도(parental overprotection), 거부적 태도(parental rejection) 지배적 태도(dominating), 허용적 태도

(submissiveness), 수용적 태도(acceptance)로 분류했다. Hurlock(1950)은 지배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동은 정직하고 조심성은 있으나 순종적이며 열등감과 억제감을 잘 느낀다고 하였으며,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에 의해 양육된 아동은 지도력이 있고, 창조적이며, 자신감과 인내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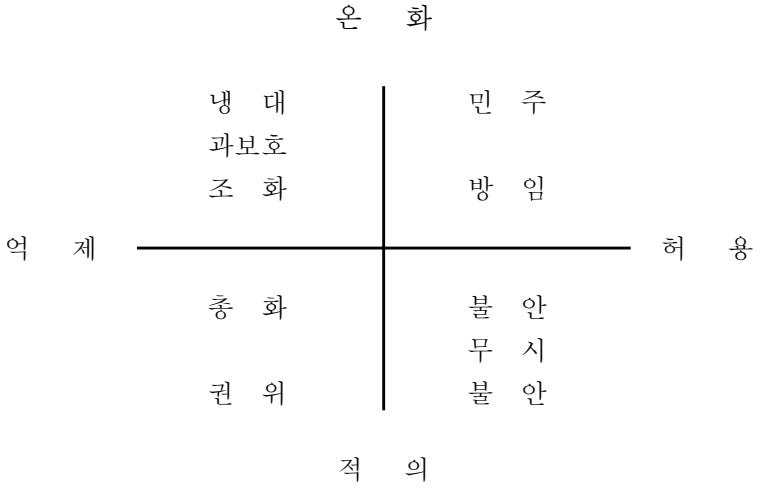
Jersild는 수용적 태도(acceptance), 거부적 태도(rejection), 익애적 태도(over-indulgence)로 구분하고 Lafore는 지배적인 태도(dictatoring), 협동적인 태도(cooperationg), 타협적인 태도(temporizing), 달래는 태도(appeasing)로 분류하였다(유영주 외, 1996).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행동 요소를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양육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두 차원이란, 사랑 대 적대감이라는 차원과 자율성 대 제재라는 차원이며, 이 두 차원의 양극적인 양육행동 요소를 조합하여 14가지의 양육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도에 따라 애정차원에 지나친 관대, 보호적 관대, 과잉보호, 적대차원에 무시, 냉담, 무관심을, 자율차원에는 민주, 협동을, 통제차원에는 독재적, 전제적, 요구적, 반목적으로 세분하였다.



[그림 3]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Becker는 그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화와 억제가 결합하여 조화, 과보호, 냉대를 형성하고, 억제와 적의는 총화와 권위를, 적의와 허용은 불안 무시 불안을, 온화와 허용은 민주와 방임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를 이론 모형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Becker의 양육태도 모형

Baumrind(1991)는 애정과 통제라는 두 차원에 의해 부모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애정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애정적이고 지원적이며,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통제 차원은 자녀에게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애정과 통제차원이 둘 다 높은 경우는 '권위적(autoritative)'부모, 통제차원은 높지만 애정 차원이 낮은 경우는 '권위주의적(authoritatrian)'부모, 애정차원은 높은데 통제 차원이 낮은 경우는 '허용적(indulgent)'부모, 그리고 애정과 통제차원이 다 낮은 경우는 '무관심한(neglectful)' 부모로 명명한다(정옥분, 2005).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규칙을 부과하며 부과한 규칙을 왜 따라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따를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와 자유를 준다.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의 행동 특성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부모가 권위 있을 때 자녀는 활발하고 우호적이

며, 자립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타인에게 협조적이며 타인과 융화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권위주의적인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매우 통제하며 부모의 의견을 따르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부과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강압적인 방식으로 체벌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이 많은 경향이 있으며 쉽게 화를 낸다. 또 목표지향성이 약하고, 공격적이나 그 공격성을 남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표출한다.

허용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요구하는 바가 적고 자녀의 기분이나 충동 등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자녀들은 자유롭게 생활한다.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기중심적이고 반항적이며 공격적이고 독립심과 성취욕구가 낮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힘이 약하며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경우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원에서도 자애로움과 엄격함이라는 두 차원에 의해 부모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여기서 자애로움은 자녀를 신뢰하고, 따뜻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엄격함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해진 바를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정옥분, 1996).

높 음		
자애로움	자애롭기만 한 부모	엄격 하면서 자애로운 부모
	엄격하지도 못하고 자애롭지도 못한 부모	엄격하기만 한 부모
낮 음	엄격함	높음

[그림 5] 자애로움과 엄격함의 두 차원에 의한 네 가지 부모유형

박성연, 이숙(1990)은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조사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

제의 7가지 양육태도가 나타났다고 한다(유영주 외, 1996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을 알아본 연구에서 엄부자모가 30.4%, 엄부엄모가 8.2%, 자부엄모가 15.1%, 그리고 자부자모가 46.3%로서 전반적으로 자부자모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전통유형인 엄부자모 유형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부모는 자부자모가 많고, 고등학생의 부모는 엄부자모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자부자모의 유형이 많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옥분, 1997).

정원식(1977)은 자율-통제의 변인과 수용-거부의 변인이 결합한 것으로 양축이 이루는 심리적 과정을 민주, 전제, 과보호, 방임적인 과정 환경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들면 과보호적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수용과 통제의 양면이 있는데 민주적이며 과보호적인 가정에서는 애정이 강한 반면에 전제적이며 과보호적 가정에서는 통제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오경옥, 1986).

김기정(1984)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의 3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오성심·이종승(1982)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을 근거로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조사했는데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오성심·이종승(1982)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4개 차원으로 분류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를 애정-적대차원에서 애정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헌신적이고 자녀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며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대화와 칭찬을 자주하며 자녀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것이고, 적대차원은 자녀의 일에 무관심하고 소홀한 편이며 자녀와 시간을 별로 같이 지내지 않으며 비난 및 체벌을 자주하며 자녀의 단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자녀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자율-통제차원에서 자율 차원은 부모가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지나친 제재를 하지 않으며 자녀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과 통제차원은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전제적이며 엄격하며 제한을 많이 하며 설명 이유는 듣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성취-비성취차원에서 성취차원은 부모가 높은 포부를 설정하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과 끈기 있게 일에 집중하고 일을 마치도록 기대하는 것과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며 비성취차원은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맡은 일의 책임 완수에 무관심하며 새로운 일이나 경험 및 호기심에 비협조적이며 잘못한 것을 자주 지적하고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합리-비합리차원에서 합리적인 태도는 부모가 매사에 이유를 중시여기며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를 제시하여 알게 하는 것과 교육방침이 이성적이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일률적인 태도를 말하며 비합리적인 차원은 이유를 들으려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 여기며 교육에 있어서 감정적이며 같은 일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자녀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오성심·이종승(1982)이 분류한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차원의 부모 양육태도는 Schaefer의 모형인 애정-적대, 자율-통제 차원의 2개 차원, 그리고 정원식의 이론 중의 한 요인인 성취-비성취, Hebb와 Bernstein의 이론에 기초를 둔 모형 중에서 합리-비합리의 2개 차원을 더 유형화함으로서 지금까지의 유형화된 부모의 양육태도 차원이 거의 포함되었다(장영지, 1995).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오성심·이종승에 의한 분류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로 분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조사 하였다.

2. 자아정체감

1) 자아정체감의 개념

청년기에 많은 청년들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수세기에 걸쳐 온 인류를 지배해 왔으나 심리학적 관심을 불러일으

킨 것은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정체감 이론은 Erik Erikson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그는 1950년부터 10여년간 청소년기에 대한 임상경험을 중심으로 자아정체감을 발전시켰으며, 특히 그의 저서 「자아정체감과 생애주기」에서 그 개념을 확립하였다. 원래 정통적인 정신분석학파에서 사용하던 자아의 개념과 심리 사회학적 시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자기의 개념을 포함하여 자아정체감이라는 통합개념을 사용하였다(김형태, 1989).

Erikson은 문학, 예술, 교육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배경으로 청년기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일련의 의문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인물인가? 아닌가? 등의 자문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정체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Erikson의 자아정체감을 정의해 보면 첫 번째 자아정체감은 "…로서의 나"에 대한 다양한 지위에 따른 역할들 간의 동질감을 의미하고 두 번째 자아정체감은 과거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간의 영속감 또는 일관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 주체적 자아(I)와 객체적 자아(Me)의 조화감을 의미하며 네 번째 "나는 나다"라는 실존의식을 자아정체감이라고 정의한다. Erikson의 위의 네 가지의 정의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한상철 등, 1995).

정옥분(2005)은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용어는 그 자체에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개별성, 총체성, 계속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개별성은 가치나 동기 또는 관심을 얼마쯤 타인과 공유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타인과 다르다는 인식, 즉 자신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인식이며 총체성은 자신의 욕구, 태도, 동기, 행동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계속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 즉 '어제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라고 한다.

Dignan은 자아정체감을 사회적 상호 작용들을 통해서 발전하여 자기를 묘사해 주는 자기참조적상들의 복합이라고 정의하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동일시가 클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은 그의 내적 동질성과 연속성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동질성 및 연속성과 일치되는 자신감이라고 정의한다(S.M.H. Dignan, Ego identity and material ident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l,No. 5, 1965

에서 재인용).

Marcia는 Erikson의 정체감 형성이론에 위기와 수행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자아정체감을 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 정체감 유예(Identity Moratorium), 정체감 유실(Identity Foreclosure), 정체감 혼미(Identity Diffusion)등 네 범주로 나누었다. 정체감 성취는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신념, 직업,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정체감 유예는 현재 정체감 위기의 상태에 있으면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 신념, 행동 등을 실험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를 말한다. 정체감 유실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수많은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부모나 다른 역할모델의 가치나 기대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체감 혼미는 자아에 대해 안정되고 통합적인 견해를 갖는데 실패한 상태를 말한다(송명자, 1995).

이와 같은 이론을 종합해 보면 자아정체감이란 첫째, 자기의 단일성, 연속성, 불변성, 독자성의 감각을 의미하고 둘째, 일정한 대상(인격)간에 또는 일정한 집단 및 그 성원 간에 시인된 역할의 달성, 공통된 가치관의 공유를 매개로 하여 얻어진 연대감, 안정감에 토대를 둔 자존감 및 잠정적인 자기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승국, 199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아청(1996 a)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승국(1995)이 일부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승국(1995)은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8개 하위 영역중 '정체감 혼미'와 '정체감 유예'등의 두 영역을 제외한 6개 하위영역인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자아정체감을 측정하였다.

주체성은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여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로 측정하였고 자기수용성은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측정하였고 미래확신성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목표지향성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의지의 정도로, 주도성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 능력의 정도와 친밀성은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로 측정하였다.

2) 자아정체감의 발달

자아정체감은 유아기의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시작된다. 유아기에 얻어지는 신뢰감은 기본적으로 개체의 경험의 일관성 또는 동질성에서부터 형성·발달되는 것이므로 정체감의 원초적 핵은 유아기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모자관계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Erikson은 전체적 이론체계에서 이를 시사하고 있으나 정체감 형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청년기에 와서이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동일시의 유용성이 없어지는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동기의 여러가지 내용을 선택적으로 거부·배제하기도 하고 또 이 단계에서 새로 획득한 동일시가 서로 동화되고 또 새로운 짜임새로 짜여 들여감으로 정체감 형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청소년기의 말기에 외부로 나타나는 정체감 위기의 단계이지만 Erikson(1968)에 따르면 자아정체감 수준을 크게 자아정체감 성취와 혼돈으로 규정한다. 전자는 행동이 안정되고 통합되어 있는 단계와 후자는 자기의식에 일관성이 없으며 신체적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동시적 몰두를 요구하는 경험들이 혼란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 단계를 ①영아기: 신뢰성 대 불신감 ②유아기: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감 ③아동초기: 주도성 대 죄책감 ④아동 후기: 근면성 대 열등감 ⑤청년기: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⑥성년기: 친밀감 대 고립감 ⑦중년기: 생산성대 침체성 ⑧노년기: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의 8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정체감 형성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체감 형성은 아동기의 경험과 동일시에 그 뿌리를 두는 것이며,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발달이 계속된다.

Sprinthal & Collins(1995)도 정체감 발달은 인지적 추론이나 도덕성 발달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동화-불평형-조절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정체감 발달의 시작 시기는 있지만, 마지막 시기는 없다고 한다.

A.Waterman(1976)과 동료들은 Marcia의 연구에 기초하여 대학생의 정체감 형성과정을 중다가능경로 모형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 모형에 따르면 정체감 발달은 혼미로부터 성취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적 과정에 따르고 있으므로 각 단계에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아래 단계로 이동할 수

도 있다고 말한다(한상철 외, 2005에서 재인용).

T.Jacobson(1964)도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서 계속 발달된다는 것을 시사하였고, Douvan & Adelson(1969)도 정체감이란 청소년기에 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형성하고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Murray(1964)도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일생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양상규, 1989).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 형성은 정신적 체제가 개체화 되면서도 발달의 단계에서도 방향과 연속성을 갖는 일관된 정체감으로써 지속해 나가려는 과정으로 스스로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고 할 수 있다.

3) 중학생 자아정체감의 특징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확립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청소년 시기의 자아정체감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시기가 급격한 신체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진학문제·이성·교우관계 등 스스로 선택과 결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청소년기에 현저하게 발달하는 인지능력은 자신에 대한 탐색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서봉연 1988).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이며 동일시 대상의 변화가 이루어져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되므로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한상철 외, 2005에서 재인용).

중학생 정체감 발달의 차이는 E.B. Chisholm(1980)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각 개인이 심리 사회적 발달의 처음 6단계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성격검사를 이용하여 두 집단의 청소년 즉, 사회적 고립집단과 사회적 지도자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Chisholm은 청소년기 정체감은 그들이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발달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고립아들이 그들의 이전 단계의 위기들을 해결하는데 덜 성공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지도자 집단 보다 더욱 낮은 수준의 희망, 의지, 목적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청소년 전기에 진입할 준비가 덜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립아들이

정체감 혼미를 반드시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정서적 성장은 그들 연령집단의 다른 아이들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정체감 발달을 나타낸 학생들은 도덕적 판단 능력 검사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사회적으로 더욱 유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체감 형성이 더욱 잘 이루어진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특징들을 더 적게 나타낼 뿐 아니라 더욱 복잡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정서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한상철 외, 2005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심리 사회적 과제의 양극단에 놓인 청소년의 특징들을 논의하였지만 중간 계층에 속한 많은 수의 중학생들은 어떻게 이해 가능한가에 대해 S.Archer와 A.Waterman(1983)은 6학년과 8학년의 남녀 학생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학생들은 정체감의 두 가지 하위 지위 즉, 정체감 혼미와 조기완료로 똑같이 나누어 졌다. 약 50%에 해당되는 조기완료(foreclosure)상태의 중학생들은 개인적 정체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태도나 관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학생들은 삶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이 추천한 대안들을 가장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성인이 자기 행동의 모델이 되며, 삶의 목적은 단순하고 종종 비현실적이다. 이들은 결혼 역시도 자기 삶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받고 의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된다.

Archer와 Waterman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나머지 절반은 정체감 혼미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 지위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경우 인간적인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 정체감 혼미 초기 청소년들에게는 적절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개인적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학생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한상철 외, 2005에서 재인용).

김형태(1989)도 중·고·대학생 666명을 대상으로 Marcia의 정체성 지위를 분석한 연구에서 중학생의 54%는 정체성 혼미에, 23%가 폐쇄에, 9%는 유예에, 14%는 성취지위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28%, 대학 2학년생의 39%만이 정체성을 성취한 것을 말하고 있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출생 직후부터 혹은 태내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발달이 인생의 초기경험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는 자녀들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부모는 자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문제해결 방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정체감 발달에 대하여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정체감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이원영, 1983; 류승림, 1988; 양상규, 1989; 이승국, 1999). 가정의 여러 의사결정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정체감 성취를 격려하고 촉진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체감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된다. 반면에, 자녀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거나,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로 하여금 정체감 탐색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맡겨 두는 허용적인 양육방식은 자녀를 정체감 혼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Bernard, 1981; Marcia, 1980). 반면에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고, 납득하도록 설명하며, 공감을 주는 부모의 고무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평가를 쉽게 내리는 제재적 행동에 비해 자녀의 정체감 발달을 크게 촉진시킨다(Houser&Bowlds, 1990).

가족이나 사회계층 또한 정체감 발달과 연관이 있다. 청년들이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정이 안전기지가 되어주면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청년들은 정체감 성취나 유예상태에 있다(Grotevant &Cooper, 1985;Lapsley, Rice,& FitzGerald, 1990). 정체감 유실의 경우는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혼미의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대화도 부족하다(Papini, Micha, & Barmett 1989).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자아의식에 관한 연구(청소년 문제연구소, 1978)는 부친의 직업, 교육정도, 경제적 수입 등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족 상호간의 가정환경변인이 청소년 자아의식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긍정적 태도, 부모-자녀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의식을

발달시키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발달에 의한 변화들에 가족들이 어떻게 적응하는가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Dyk, 1990).

이희숙(1983)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모순적이라고 자녀가 지각할 때 자녀의 자아개념은 부정적으로 형성되며, 보호적·복종적이라고 지각할 때 자아개념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홍준균(1974)은 부모의 태도가 거부적이고 모순불일치일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며, 부모의 태도가 수용적일 수록 자아개념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태도변인들과 자녀의 자아개념간의 중다상관분석에서 그 영향력의 순위는 거부적 태도와, 복종적 태도, 모순불일치의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양상규, 1989에서 재인용).

이승국(1999)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00여명과 그들의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로는 부부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의 교육적 기대,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지지, 친구의지지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그 관련변인을 알아본 연구(박성옥과 어은주, 1994)에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간의 자율감과 친밀감으로 표현되는 가족의 기능도가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가족의 기능도가 높을수록 청년의 자아정체감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옥분, 2005에서 재인용).

위와 같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전기와 후기 즉 청소년기 전반적 영역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 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남녀공학 2개교와 남학교 1개교, 여학교 1개교의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11월과 12월에 실시하였고, 질문지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590부를 배부하여 560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질문지 61부를 제외하고 총 49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499

변 수		구 분	빈도	%
성 별		남	247	49.5
		녀	252	50.5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대졸이상	265	53.11
		고 졸	212	42.48
		중졸이하	22	4.41
	어머니의 학력	대졸이상	172	34.47
		고 졸	300	60.12
		중졸이하	27	5.41
어머니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202	40.48
		취 업 모	297	59.5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499부에서 남학생은 247명으로 49.5%이고, 여학생은 252명으로 50.5%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졸 이상인 경우가 53%로 가장 많고, 고졸, 중졸이하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60%로 가장 많았고 대졸과 중졸이하의 순서로 분포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취업을 한 경우가 297명으로 60%에 해당 하였고 전업주부인 경우는 202명으로 40%에 해당하였다.

4개 학교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가 각각의 학교에서 50%가 넘는 비슷한 수치의 결과가 나왔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가정이 더 많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여성의 고용시장이 늘고 사교육비의 증가 등으로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학생용 질문지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나누어서 묻는 질문지로 구성되었고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사용되었다.

1)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측정도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합리, 성취 등 4개의 차원으로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평정척도를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 사용된 질문지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Schaefer가 제작한 양육차원 외에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2개 차원을 더 유형화하여 애정지향, 자율지향, 합리지향 등 4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원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 성취-비성취 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육태도로 양극화시켰다.

애정-적대차원 15문항, 자율-통제차원 15문항, 성취차원 15문항, 합리차원 15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인 문항 28개, 부정적인 문항 32개로 이루어졌고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마다의 점수는 부·모를 구분하여 긍정적인 문항인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을, '그런편이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을 주었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양

육태도가 부정적(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양육태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애정-적대차원은 .83, 자율-통제차원은 .73, 성취-비성취차원은 .69, 합리-비합리차원은 .7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애정-적대차원은 .82, 자율-통제차원은 .72, 성취-비성취차원은 .68, 합리-비합리차원은 .74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의 척도 신뢰도는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부모의 양육태도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Cronbach's α) 계수
애정 - 적 대	아버지	15	1, *5, 9, 13, *17, *21, 25, *29, *33, 37, *41, 45, 49, *53, *57	.83
	어머니	15		.82
자율 - 통 제	아버지	15	2, 6, 10, *14, *18, 22, *26, *30, *34, 38, *42, *46, 50, 54, *58	.73
	어머니	15		.72
성취 - 비성취	아버지	15	3, *7, *11, 15, 19, *23, 27, 31, 35, *39,*43, *47, 51, 55, 59	.69
	어머니	15		.68
합리 - 비합리	아버지	15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73
	어머니	15		.74

*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2)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박아청(1996a)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승국(1995)이 일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아청(1996a)이 제작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측정 도구는 그동안 우리나

라에서 사용되어 온 자아정체감 척도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다면적인 자아정체감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와 생활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개발된 검사지이다.

이승국(1995)은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8개 하위영역 중 '정체감 혼미'와 '정체감 유예'등의 두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하위영역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하위영역은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6개의 하위영역이다.

자아정체감 하위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자아정체감 하위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척 도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Cronbach's α) 계수
주 체 성	8	1, 7, 13, 19, 25, 31, 37, 43	.79
자기수용성	8	*2, *8, 14, *20, *26, *32, *38, *44	.85
미래확신성	8	*3, 9, *15, 21, 27, *33, 39, 45	.91
목표지향성	8	*4, *10, *16, *22, *28, *34, *40, *46	.77
주 도 성	8	*5, *11, *17, *23, *29, *35, *41, *47	.82
친 밀 성	8	*6, *12, *18, *24, *30, *36, 42, *48	.83
자아정체감 전체척도	48		.93

*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긍정적인 문항의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1점,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2점, '어느쪽도 아니다'는 3점, '조금 해당된다'는 4점, '매우 많이 해당된다'는 5점을 주었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주체성 .79, 자기수용성 .85, 미래 확신성 .91, 목표지향성 .77, 주도성 .82, 친밀성 .83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전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α의 계수는 .93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대단히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연구자가 교생 실습을 하고 있던 2005년 10월에 광주시내 소재 중학교 3학년 3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학생들의 일반사항을 폭넓게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의 일반사항으로 양육자가 한 부모인 경우와 조부모가 양육자인 경우, 부모와 본인의 종교, 부모님의 학력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한 부모 및 조부모가 양육자인 경우와 부모와 본인의 종교를 조사했을 때 낮은 수치로 나타나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주시내에 소재한 남자 중학교 1개교와 여자중학교 1개교, 남녀공학 중학교 2개교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배부할 수가 없어 사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기술.가정 교과 담당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기술·가정교과 담당 교사의 지도 아래 작성하게 하였다. 배부된 590부 질문지 중 총 560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61부를 제외하고 연구에 499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했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일반적인 경향

1)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반적 경향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4>와 같다. 중학생들이 지각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점수범위는 1~4점이며 중앙값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하위 영역 중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를 알게 하고 교육방침이 항상 일률적인 합리적 태도가 평균값이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합

리적 태도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헌신적이고 대화와 칭찬을 자주하며 자녀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애정적 태도가 3.51로 나타났고, 자녀에게 높은 포부를 설정하도록 격려하고 끈기 있게 일에 집중하고 일을 마치도록 기대하는 성취적 태도가 3.34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적 태도가 3.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헌신적이고 대화와 칭찬을 자주하며 자녀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애정적 태도와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를 알게 하고 교육방침이 항상 일률적인 합리적 태도가 3.65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높은 포부를 설정하도록 격려하고 끈기 있게 일에 집중하고 일을 마치도록 기대하는 성취적 태도가 3.36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적 태도가 3.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 태도 중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적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통제적이며 권위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상규(1989)와 이화림(2000)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가장 낮은 영역이 자율 차원으로 나타난 것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도 애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4>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반적 경향

부모의 양육태도		Mean(1~4)	Std
아버지	애정적	3.51	.53
	자율적	3.24	.42
	성취적	3.34	.39
	합리적	3.63	.43
어머니	애정적	3.65	.48
	자율적	3.23	.41
	성취적	3.36	.39
	합리적	3.65	.43

2) 자아정체감의 일반적 경향

정체감의 일반적 경향은 <표 5>와 같다. 자아정체감에서는 1~5점에서 3점을 평균으로 했을 때 전체자아정체감이 3.32로 나타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자아정체감의 일반적 경향

자아정체감	Mean(1~5)	Std
주 체 성	3.63	.67
자기수용성	3.67	.85
미래확신성	3.51	1.02
목표지향성	2.93	.75
주 도 성	3.02	.80
친 밀 성	3.18	.88
자아정체감 전체	3.32	.60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에서는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자기수용성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의지의 정도인 목표지향성이 2.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

1) 조사 대상자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표 6>과 같다.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를 보면 성취차원을 제외한 양육태도 하위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헌신적이고 대화와 칭찬을 자주하며 자녀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성별에 따라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3.58로 남학생 3.44보다 애정적 태도를 더 긍정

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아버지의 자율적 태도는 성별에 따라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3.33으로 남학생 3.16보다 아버지의 자율적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높은 포부를 설정하도록 격려하고 끈기 있게 일에 집중하고 일을 마치도록 기대하는 아버지의 성취적 태도는 남학생이 3.33, 여학생이 3.38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를 알게 하고 교육방침이 항상 일률적인 아버지의 합리적 태도는 성별에 따라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3.69로 남학생 3.58보다 아버지의 합리적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현(1998)의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헌신적이고 대화와 칭찬을 자주하며 자녀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애정적 태도는 성별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3.73으로 남학생 3.58보다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어머니의 자율적 태도에도 성별간에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3.30으로 남학생 3.16보다 어머니의 자율적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효임과 김성일(2005)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자율-통제적 태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 모두가 자율을 더 허용한다고 지각하였다고 밝힌 것과 이 현(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자율적 태도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자녀에게 높은 포부를 설정하도록 격려하고 끈기 있게 일에 집중하고 일을 마치도록 기대하는 어머니의 성취적 태도는 남학생이 3.33, 여학생이 3.39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를 알게 하고 교육방침이 항상 일률적인 어머니의 합리적 태도도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3.70으로 남학생 3.60보다 어머니의 합리적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취적 태도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최효임과 김성일(2005)의 연구에서 성취 압력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부모가 과잉 기대를 하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조사 대상자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태도 \ 성 별		남		여		t-value
		Mean	Std	Mean	Std	
아버지의 양육태도	애 정	3.44	.54	3.58	.50	3.01**
	자 율	3.16	.43	3.33	.39	4.70***
	성 취	3.33	.42	3.38	.37	1.22
	합 리	3.58	.45	3.69	.41	2.88**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 정	3.58	.48	3.73	.47	3.35***
	자 율	3.16	.40	3.30	.43	3.56***
	성 취	3.33	.39	3.39	.39	1.53
	합 리	3.60	.43	3.70	.42	2.55**

**p<.01 ***p<.001

2) 부모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부모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는 <표 7>과 같다. 부모의 학력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과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 보다 양육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현(1998)의 연구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표 7> 부모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양육태도 \ 변인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이상		F-value
		Mean	Std	Mean	Std	Mean	Std	
애정	부	3.30	.53	3.51	.50	3.52	.54	1.82
	모	3.60	.41	3.65	.48	3.66	.49	.18
자율	부	3.31	.48	3.28	.36	3.23	.43	1.56
	모	3.27	.32	3.25	.42	3.19	.43	1.10
성취	부	3.22	.38	3.33	.47	3.38	.41	2.25
	모	3.29	.32	3.36	.37	3.39	.43	.50
합리	부	3.43	.39	3.65	.34	3.64	.43	2.22
	모	3.51	.39	3.67	.40	3.73	.47	1.98

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는 <표 8>과 같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유경(1993)의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능력 연구”와 고현주(2002)의 “어머니의 취업이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서 양육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Hock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와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 양육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제시하며 Miller와 Stevens의 연구에서도 4세아에 대한 양육행동에서 직업을 가진 어머니와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간의 양육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힌다.

<표 8>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양육태도 \ 변인		비취업모		취업모		t-value
		Mean	Std	Mean	Std	
애 정	부	3.56	.51	3.48	.53	1.79
	모	3.69	.47	3.63	.49	.09
자 율	부	3.25	.40	3.24	.44	-.07
	모	3.22	.39	3.24	.44	1.60
성 취	부	3.35	.37	3.36	.41	1.60
	모	3.34	.39	3.38	.39	-.44
합 리	부	3.67	.43	3.60	.43	-1.09
	모	3.66	.45	3.64	.42	.79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양육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취업모는 주부로서 또한 사회인으로서의 과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양육태도에서 전업주부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취업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 인식의 변화로 어머니의 취업은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갖게 하고 이러한 인식은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취업모도 어머니의 역할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많은 정성을 기울이기 때문에 양육태도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모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취업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전업주부와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본인이 생각한 만큼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대리양육자들이나 양육시설이 없다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양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 직장을 쉬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이러한 취업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녀의 저출산 현상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런 현실에 맞추어 현재 여러 가지 취업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신(2001)의 연구 "가정·직장 양립 스트레스권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지원서비스 매개효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취업모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보육시설과 육아휴직제도, 유동근무제도, 가족간호휴직제도, 보육비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 근로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여성 근로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보육서비스에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취업모의 입장에 맞추어서 보육유형의 다양화(종일제, 야간제, 시간제)와 보편화, 육아휴직제도, 유동근무제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파파쿼터(PaPa's Quota)제'의 정착 등 육아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이며 적절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가족 내에서 수행되던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업무를 다양한 형태로 사회화하는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책이 늘어날 때 취업모의 이중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직업을 인정하고 집안일을 분담하고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 지원을 해준다면 취업모의 직업 만족도와 업무효율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만족도는 다시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에도 이어져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직업을 통해 자기 성취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기피되는 저출산의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 조사 대상자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을 살펴보면<표 9>와 같다. 자아정체감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는 여학생이 3.38, 남학생 3.27로 $p<.05$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화림, 2001; 양상규, 1989)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서봉연(1975)이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표 9> 조사 대상자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성 별 / 자아정체감	남		여		t-value
	Mean	Std	Mean	Std	
주 체 성	3.65	.65	3.61	.68	.58
자기수용성	3.58	.84	3.76	.84	-2.37*
미래확신성	3.48	.96	3.54	1.08	-.65
목표지향성	2.94	.75	2.91	.75	.57
주 도 성	2.97	.76	3.08	.83	-1.53
친 밀 성	2.97	.83	3.39	.88	5.51***
자아정체감 전체	3.27	.59	3.38	.63	-2.16*

* p<.05 ***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인 친밀성에서 p<.001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2.97, 여학생이 3.39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의 실체와 성격 및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자기수용성에서 p<.05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 3.58, 여학생 3.76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윤명숙(1989)의 연구에서 자기수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하나 김승은(1985)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생 남자집단보다 여자 고등학생에서 ‘자기수용성’이 각각 높게 나타남으로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나 가정이 성별에 따른 역할기대, 역할규준을 달리하

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2)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아정체감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표 10>과 같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하위영역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주도성에서만 p<.05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0>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아정체감

하위영역 \ 변인		중졸이하			고졸			대학졸이상			F값
		Mean	Std	D	Mean	Std	D	Mean	Std	D	
주 체 성	부	3.70	.82		3.62	.62		3.63	.69		.19
	모	3.63	.64		3.06	.66		3.67	.67		.62
자기수용성	부	3.69	.90		3.61	.84		3.72	.85		1.04
	모	3.54	.81		3.65	.85		3.73	.86		.91
미래확신성	부	3.49	1.13		3.41	.99		3.59	1.04		2.04
	모	3.43	1.02		3.44	1.00		3.65	1.05		2.31
목표지향성	부	3.01	.87		2.86	.66		2.98	.81		1.62
	모	2.99	.77		2.90	.73		2.97	.79		.49
주 도 성	부	3.00	1.02		2.94	.73		3.09	.83		2.08
	모	2.88	.86	B	2.96	.75	B	3.16	.86	A	3.8*
친 밀 성	부	3.08	.87		3.09	.89		3.26	.87		2.17
	모	2.94	.95		3.15	.85		3.27	.93		1.95
전 체 자아정체감	부	3.33	.81		3.25	.53		3.38	.63		2.56
	모	3.24	.67		3.28	.58		3.40	.63		2.59

* p<.05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가 고졸, 중졸보다 자녀의 자아정체감 하위영역 중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인 주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윤명숙(1989)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라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Jones등은 학령전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덜 지시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며 Zuckerman(1958)등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태도가 낮았음을 밝힌다(김윤숙, 1989에서 재인용).

이원영(1983)도 교육정도가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의존성 조장의 정도가 덜한 편이라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이 자녀에게 미쳐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와 고졸, 중졸이하인 경우 자녀의 주도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은수(1985)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의존성 조장태도를 나타냈다고 한다.

전반적인 자아정체감 경향은 부모의 학력이 대학졸이상인 경우 자아정체감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학력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현구(2002)의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상인 수준과 하인 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아개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정체감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의 자아정체감은 <표 11>과 같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취업모 3.30, 비취업모 3.36으로 자아정체감 전체에 $p<.05$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하위영역에는 자기수용성과 친밀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의 실체와 성격 및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자기수용성은 취업

모의 경우는 3.64, 비취업모인 경우는 3.72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인 친밀성은 취업모의 경우는 3.16, 비취업모인 경우는 3.21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의 자아정체감

성 별 / 자아정체감	비취업모		취업모		t-value
	Mean	Std	Mean	Std	
주 체 성	3.68	.61	3.60	.70	.58
자기수용성	3.72	.82	3.64	.87	-2.37*
미래확신성	3.59	.98	3.46	1.06	-.65
목표지향성	2.98	.74	2.90	.76	.57
주 도 성	3.01	.78	3.03	.81	-1.53
친 밀 성	3.21	.88	3.16	.88	-5.51***
자아정체감 전체	3.36	.58	3.30	.62	-2.16*

*p<.05 ***p<.001

최정현(2004)은 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 불안 애착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접촉시간에 따른 변인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애착도 많은 시간을 접촉할수록 의사소통, 신뢰감, 총애착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자녀와 접촉시간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정체감 하위 영역에서 자기 수용성과 친밀성이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자녀사이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가 취업을 한 어머니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짐으로 전업주부의 자녀에서 친밀성과 자기수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 조사 대상자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및 영향

1) 조사 대상자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1)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버지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버지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는 <표 12>와 같다. 아버지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전체의 상관관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두 아버지가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헌신적이고 대화와 칭찬을 자주하며 자녀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애정적 태도와 자녀에게 높은 포부를 설정하도록 격려하고 끈기있게 일에 집중하고 일을 마치도록 기대하는 성취적 태도,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를 알게 하고 교육방침이 항상 일률적인 합리적 태도에서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아버지의 자율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01수준, 여학생은 p<.01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인 역할 또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여 영향을 발휘하는 주체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버지의 애정적, 성취적 태도에서 p<.001수준, 자율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01수준, 여학생은 p<.01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합리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01수준, 여학생은 p<.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의 실체와 성격 및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자기수용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버지의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에서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는 미래확신성의 경우 남학생은 아버지의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에서 p.<01수준의 상관관계를, 여학생은 아버지의 애정적, 성취적 태도에서 p<.001수준, 합리적 태도에서 p<.05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율적 태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미래확신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의지인 목표지향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버지

의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에서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버지의 자율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1수준, 여학생은 p<.05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인 주도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버지의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에서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1수준, 여학생은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인 친밀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버지의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에서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버지의 자율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5수준, 여학생은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2>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버지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양육태도 / 자아정체감	애 정		자 율		성 취		합 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주 체 성	.30***	.26***	.25***	.16**	.23***	.23***	.25***	.16**
자기수용성	.37***	.36***	.24***	.23***	.37***	.30***	.34***	.36***
미래확신성	.15**	.25***	.10	.11	.17**	.23***	.17**	.15*
목표지향성	.27***	.29***	.21**	.14*	.26***	.23***	.26***	.22***
주 도 성	.16**	.29***	.25***	.25***	.24***	.28***	.29***	.29***
친 밀 성	.26***	.23***	.14*	.23***	.21***	.27***	.22***	.25***
자아정체감전체	.35***	.37***	.28***	.25**	.35***	.35***	.35***	.32***

*p<.05 **p<.01 ***p<.00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p<.001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표는 부록 2에 첨부하였다.

(2)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는 <표 13>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전체와 상관관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어머니가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헌신적이고 대화와 칭찬을 자주하며 자녀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애정적 태도와 자녀에게 높은 포부를 설정하도록 격려하고 끈기 있게 일에 집중하고 일을 마치도록 기대하는 성취적 태도, 그리고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를 알게 하고 교육방침이 항상 일률적인 합리적 태도에서 p<.001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어머니의 자율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1수준, 여학생은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3>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양육태도 / 자아정체감	애정		자율		성취		합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주 체 성	.22***	.33***	.18*	.25***	.25***	.29***	.20**	.25***
자기수용성	.38***	.43***	.13*	.30***	.38***	.33***	.31***	.44***
미래확신성	.10	.25***	.07	.13*	.13*	.22***	.17*	.17**
목표지향성	.21**	.32***	.12	.18**	.28***	.27***	.21***	.25***
주 도 성	.17**	.28***	.18*	.28***	.29***	.32***	.28***	.31***
친 밀 성	.22***	.20**	.12	.16**	.26***	.29***	.21**	.23***
자아정체감전체	.30***	.40***	.19**	.28***	.37***	.38***	.32***	.36***

*p<.05 **p<.01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인 역할 또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영향을 발휘하는 주체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어머니의 애정적, 성취적 태도에서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자율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5수준, 여학생은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합리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1수준,

여학생은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의 실체와 성격 및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자기수용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어머니의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와 p<.001수준에서, 자율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5수준, 여학생은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는 미래확신성의 경우 남학생은 어머니의 성취적, 합리적 태도에서 p<.05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학생은 어머니의 애정적, 성취적 태도에서 p<.001수준, 자율적 태도는 p<.05수준, 합리적 태도에서 p<.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태도는 남학생의 미래확신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의지인 목표지향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어머니의 성취적, 합리적 태도에서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애정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1수준, 여학생은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율적 태도는 남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학생은 어머니의 자율적 태도에서 p<.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인 주도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어머니의 성취적, 합리적 태도와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애정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1수준, 여학생은 p<.001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율적 태도에서 남학생은 p<.05수준, 여학생은 p<.001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인 친밀성의 경우 남학생은 애정적, 성취적 태도에서 p<.001수준, 합리적 태도에서 p<.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학생은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태도에서 P<.01수준, 성취적, 합리적 태도에서 p<.001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자율적 태도는 남학생의 친밀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에서 자율적 태도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통제적인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보다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Crouter(1995)가 가정에서 부모-자녀 접촉은 어느 정도 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고 한 것과 D'Angelo, Weinber-

ger, & Feldman (1995)은 가정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흥미,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해 딸 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므로 아들이 딸에 비해 아버지의 성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한상철 외, 2005에서 재인용)는 연구 결과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는 수치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조금 더 높게 여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딸이 어머니의 영향을 아들보다 더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p<.001$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관한 표는 부록 3에 첨부하였다.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태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부와 모의 양육태도 하위영역 점수간의 상관(.67~.75)이 매우 높아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분리시켜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 각각 부와 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계수가 1.4~3.2로 다중 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검토를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계산하였더니 D-W 값이 1.82~2.17로 나타나서 잔차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성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표 14>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자아정체감 전체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유의성은 없었다.

<표 14>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성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태도 \ 자아정체감 β값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전체
애정	남	.26*	.13	-.04	.11	-.24*	.15	.08
	여	.25*	.13	.21*	.20*	.02	-.06	.16
자율	남	.11	-.06	.01	.07	.18*	-.07	.05
	여	.09	.06	-.00	-.00	.12	.11	.08
성취	남	-.04	.27**	.10	.12	.13	.07	.16
	여	.10	.08	.13	.10	.13	.17	.16
합리	남	.01	.11	.14	.04	.25*	.12	.17
	여	-.12	.18*	-.10	.01	.13	.14	.06
intercept	남	2.2	.67	1.75	1.18	.77	1.29	1.31
	여	2.11	.60	1.56	1.15	.11	.44	.99
F-value	남	6.31***	12.54***	2.41*	5.13***	7.30***	4.53***	10.87***
	여	5.84***	10.33***	4.27***	5.20**	7.54***	6.03***	10.77***
R^2	남	.10	.18	.04	.08	.11	.07	.16
	여	.09	.15	.07	.08	.11	.09	.15
D-W	남	1.98	1.93	1.90	2.17	2.01	2.07	1.85
	여	2.08	1.98	1.84	1.82	1.98	2.07	1.94

*p<.05 **p<.01 ***p<.001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주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β=.26)이었고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주체성의 10%를 설명하고 있다.

남학생의 자기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성취적 태도(β=.27)이었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기수용성의 18%를 설명하고 있다.

남학생의 미래확신성과 목표지향성, 친밀성에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확신성 4%를, 목표지향성 8%를, 친밀성은 7%

로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의 주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β=-.24), 자율적 태도(β=.18), 합리적 태도(β=.25)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주도성의 11%를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공계숙(2005)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주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β=.25)이었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주체성의 9%를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의 자기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합리적 태도(β=.18)이었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기수용성의 15% 를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의 미래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β=.21)이었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미래확신성의 7%를 설명하고 있다.
목표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β=.20)이었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목표지향성의 8%를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주도성과 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주도성의 11%, 친밀성의 9%로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아버지가 애정적 태도를 가질 때 남학생은 주체성이, 여학생은 주체성과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이 높아지고 아버지가 성취적 양육태도를 가질 때 남학생은 자기수용성이 높아지며, 아버지가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남학생의 주도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은 아버지가 합리적 태도를 가질 때 자기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각 하위영역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에 관한 표는 부록 4에 첨부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성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표 15>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남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성취적 태도(β=.30)가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 전체의 17%를 설명하고 있다.

<표 1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 성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태도 \ 자아정체감 β값		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전체
애정	남	.06	.17	-.10	.03	-.25*	-.02	-.03
	여	.22*	.21*	.25*	.21*	-.08	-.13	.15
자율	남	.09	-.13	.01	-.01	.08	-.02	-.01
	여	.16*	.13	.00	.04	.14*	.03	.10
성취	남	.17	.29**	.08	.25**	.26**	.22*	.30**
	여	.09	-.00	.08	.11	.20*	.27*	.16*
합리	남	-.02	.10	.22*	.04	.27**	.11	.18
	여	-.03	.21*	-.08	.03	.20*	.15	.11
intercept	남	2.04	.50	1.58	1.04	.44	.72	1.05
	여	1.31	-.02	1.39	.60	-.29	.81	.63
F-value	남	4.00**	13.84***	2.64*	5.09***	8.40***	5.05***	11.32***
	여	9.74***	17.09***	4.30**	7.57***	10.47***	5.68***	14.15***
R^2	남	.07	.20	.05	.08	.13	.08	.17
	여	.14	.23	.07	.12	.15	.09	.20
D-W	남	1.93	1.9	1.95	2.11	2.00	2.04	1.83
	여	2.06	1.98	1.87	1.89	1.95	2.04	1.92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주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없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남학생의 주체성의 7%를 설명하고 있다.

남학생의 자기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성취적 태도(β=.29)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기수용성의 20%를 설명하고 있다.

남학생의 미래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합리적 태도(β=.22)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미래확신성의 5%를 설명하고 있다.

남학생의 목표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성취적 태도(β=.25)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목표지향성의 8%를 설명하고 있다.

남학생의 주도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β=-.25), 성취적 태도(β=.26), 합리적 태도(β=.27)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주도성의 13%를 설명하고 있다.

남학생의 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성취적인 태도(β=.22)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친밀성의 8%를 설명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취적 태도(β=.16)가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 전체의 20%를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의 주체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β=.22), 자율적 태도(β=.16)이었고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여학생의 주체성을 14%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의 자기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β=.21), 합리적인 태도(β=.21)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기수용성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의 미래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β=.25)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미래확신성의 7%를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의 목표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β=.21)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목표지향성의 12%를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의 주도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율적 태도(β=.14), 성취적 태도(β=.20), 합리적인 태도(β=.20)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주도성의 15%를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의 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성취적인 태도(β

=.27)이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친밀성의 9%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남학생은 어머니가 성취적인 태도를 가질 때 자기수용성과 목표지향성, 친밀성이 높아지고 어머니가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때 미래확신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애정적 태도와 성취적 태도, 합리적 태도를 가질 때 남학생의 주도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은 어머니가 애정적 태도를 가질 때 미래확신성과 목표지향성, 어머니가 애정적, 자율적 태도를 가질 때 주체성이, 어머니가 애정적, 합리적 태도를 가질 때 자기 수용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를 가질 때 주도성이 높아지며 어머니가 성취적 태도를 가질 때 친밀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이에 관한 표는 부록 5에 첨부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광주시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반적 경향과 자아정체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변인(성별, 부모의 학력,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보았고, 성별,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광주시내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560부 배부하여 499부를 최종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을 활용하여 Cronbach α 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의 요약을 통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남학생 49.5%, 여학생 50.5%였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졸, 고졸, 중졸이하의 순서로 분포되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대졸, 중졸이하의 순서로 분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취업을 한 경우가 60%였고 전업주부인 경우는 40%였다.

2.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점수범위를 1~4점으로 주어 중앙값 2.5를 기준으로 할 때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의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3.23~3.65 사이로 나타나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자아정체감의 일반적 경향은 5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알아본 결과 자아정체감 전체에서 3.32로 나타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조사 대상자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태도가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태도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적 태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학력은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는 비취업모와 취업모에서 양육태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취업여부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대부분 가정의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로 소자녀를 둔 가정이 많고 어머니가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 하지 않는 어머니와 동일하게 자녀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양육태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볼 때 여성 고용시장의 증가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들이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주부의 취업을 긍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직업을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현장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취업에 임하게 된다. 이러한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는 자신의 사회적 생

활과 가정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녀양육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비취업모와 양육태도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취업여부보다는 직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직업의 종류, 가정분위기가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육방법에 있어서는 취업모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데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위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녀양육 서비스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한다면 취업모의 직업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을 통해 자기 성취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기피되는 저출산의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에서 친밀성과 자기수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자기 실체와 성격 특성 및 제반 능력과 자신의 취약점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더 높은 지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바라는 기대나 역할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아버지의 학력은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주도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자녀의 주도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의존성 조장의 정도가 낮은 양육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비취업모의 자녀가 자기수용성과 친밀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비취업모가 자녀와 접촉할 시간이 많아 상호작용을 할 시간이 많았고 어머니와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자녀는 친밀성과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을 갖으며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별, 양육태도,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은 아버지의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미래확신성에서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율적 태도는 미래확신성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미래확신성이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며, 과보호적인 경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가 타나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더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전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자아정체감의 주체성과 자기수용성, 주도성은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 전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미래확신성은 성취적, 합리적 태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애정적, 자율적 태도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표지향성과 친밀성에서는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목표지향성과 친밀성은 자율적인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인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엄격하고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났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해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은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는 어머니의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 딸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남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없었고, 자아정체감의 주체성에 애정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자기수용성에는 아버지의 성취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주도성에는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없었고 자아정체감 주체성에는 애정적인 태도가 영향을 주었고 자기수용성에는 아버지의 합리적인 태도가, 미래확신성에는 애정적인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목표지향성에는 애정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남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남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는 성취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수용성과 목표지향성에 성취적 태도가, 미래확신성에는 합리적 태도가, 주도성에는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친밀성에는 성취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정체감 전체에는 성취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성에는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기수용성에는 애정적, 합리적 태도가, 미래확신성과 목표지향성에는 애정적인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주도성은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태도가 영향을 주었고 친밀성에는 성취적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자녀들은 높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자녀들이 가장 낮게 지각하는 양육태도는 자율적 태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과잉보호와 통제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 발달 형성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균형잡힌 양육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보다 나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광주시내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제한되었기에 연구결과를 모든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보다 폭넓게 선정하여 발달 단계별, 지역별로 비교해서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학생들이 직접 답변하는 질문지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에서 피험자 자신의 자각과 판단으로만 측정되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주의가 따른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각각 조사하여 부모가 자각하는 양육태도와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선행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변인에 주로 치중되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대중매체의 변인 등 사회문화적인 변인들로 확장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고현주(2002). 어머니의 취업이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계숙(2005).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권순(2000). 모의 취업여부가 아동의 양육태도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기정 옮김(D.W Feller 지음 1995).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서울:문음사

김성일(1997). 부모의 수용이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Vol.35 No.3.

김승은(1985).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숙(1989).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논문.

김정규(1983). Erickson과 Mercia의 자아발달 이론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교육논총 제 3집. p.50-51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승림(1998). 가족 정서관계 변인과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아청(1996).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정민사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미영(2001). 취업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pp.347~352.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유경(1993).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상규(198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형성수준과의 관계. 공주사범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경옥(1986).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노트, 11(1)

유영주(1971).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9호, 제2권. pp.1-16.

유영주 등(1996). 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pp.195.

유현구(2002).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봉숙(198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명숙(1988).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신(2001). 가정·직장 양립 스트레스권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지원서비스 매개효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지. 7호. pp216.

이 숙(1986).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4권 4호. pp.205.

이승국(1995).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유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서울:서울중앙적성출판사. pp.101-136.

이태영(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 현(1998).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화림(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희숙(1983). 자녀가 지각한 부친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원식(1977). 「현대교육심리학」. 서울:교육출판사

정옥분(2005). 「청년심리학」. 서울:학지사, pp.328~330, 442~448.

정옥분 등(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아동학회지 18(1), p.81-107

정현숙등(2001). 가족관계. 서울:신정출판사. p.369~376.

청소년상담원(1996).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청소년 대화의 광장

최정현(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효임·김성일(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상철 외 (1995) 청소년심리의 이해. 서울:학문사 p.185-187, 195-199

함정숙(198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및 인지적 특성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man, M. C. & Hoffman, L.W.(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1. New York: Sage Foundations.

Belen L. Mills and Ann Stevens(1985).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differences in parental child rearing practic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2, pp.181-194.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 pp.83-96

Dignan. M.H.(1965) Ego identity and material ident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l, No. 5, pp.476-483.

Dyk, P.H.(1990). Family relations facotrs that facilitate or inhibit middle adolescent idendity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Ellen Hock(1980).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ir infants a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caregiving characteristics and infant 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ly, 26, pp.79-101.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Fishbeion, M. and Aizen, I. B.(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achusetts:Addison -Wesley.

Cooper.C.R., & Grotevant, H.D.(1989).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nd adolescents'self and relational competenc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Hurlock, E. B(1950). Child Development 6th, ed. New York: M.Graw - Hill Publication.

Hurlock, E. B(1964).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Co., pp.670 -673.

Marcia, J(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lolgy. New York :Wiley

M. R. Yarrow, Phyllis Scott, Louise De Leeuw and C. Heinig(1962). Child-rearing in families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Sociometry, 25, pp.122-140.

L.W. Hoffman(1960), Effects of the employment of mothers on parental power relations in the devision of houshold tasks, Marriage and Family Living, 22, pp.27-35.

L.W. Hoffman(196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Child Development, 32, pp.187-197.

Schaefer, E. S.(1959). A circum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4, pp.226-235.

Schaefer and N. Baley(1960). Consistency of maternal behavior from infa ncy to preadolescence. Journal of Abnoral and Social Psychology, 61, pp.106.

Sprinthal, N..,&Collins, W. A. (1995). Adolescent Psychology: A developmental view(3rd). New York:McGraw~Hill,Inc.

Symonds, P. M.(1939). Psychology Parents-child relationship. N.Y.:Apleton Centry, Croft

W. McCord, J. McCord, and P. Verelen(1962), Famili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dependency in male children, Child Development, 33, pp.313-326.

(부 록 1)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질문지에서는 틀린 답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답해주신 이 질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 · 가정교육 전공

방 명 진

* 해당사항에 V 표 또는 기입해 주십시오.

1. 학년 : 중학교 3년
2. 성별 : 남(　　), 여(　　)
3. 부모님의 학력을 표시해 주십시오.
   · 아버지 : 대학졸 이상(　　) 고졸(　　) 중졸이하(　　)
   · 어머니 : 대학졸 이상(　　) 고졸(　　) 중졸이하(　　)
4. 어머니의 취업유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 전업주부(　　) · 취업모(　　)

*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느끼는 부모님의 태도와 가까운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학생은 지금 키워주시는 분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머니께서는			
	거 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거 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신다.								
2.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도와주신다.								
3. 아버지(어머니)는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신다.								
4.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아버지(어머니)는 싫어하시는 편이다.								
5. 아버지(어머니)는 화가 날 때 식구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6. 아버지(어머니)는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7.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아버지(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냐?”하고 핀잔을 주신다.								
8. 아버지(어머니)는 형제들을 야단치실 때 차별하시는 일이 없다.								
9.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 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 주신다.								
10.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어머니)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문 항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머니께서는			
	거 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거 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그 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1.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어머니)는 "애가 어째 그 모양이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12. 아버지(어머니)는 기분이 나쁠 때에는,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시는 때가 많다.								
13. 아버지(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놀이를 하거나 휴일에 가족 나들이 가기를 좋아하신다.								
14. 우리 집은 아버지(어머니) 말씀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야단맞기 쉽다.								
15. 아버지(어머니)는 칭찬 받기 위해서 일 하기 보다는 일 자체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16.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잘 지킨다.								
17. 큰 잘못이나 이유 없이도,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꾸짖는 경우가 많다.								
18.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아버지(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19. 아버지(어머니)는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20. 아버지(어머니)는 형제 중에서 어떤 자녀를 특히 더 귀여워하신다.								
21.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22.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말과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23. 일을 시키신 후에 잘못하면, 아버지(어머니)는 "너에게 맡긴 내가 잘못이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24. 아버지(어머니)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다가도 내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하는 수 없이 허락하시곤 한다.								

문 항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머니께서는			
	거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5. 내가 어떤 일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어머니)는 함께 의논해 주신다.								
26. 아버지(어머니)는 모든 일이 아버지(어머니)의 뜻대로 되도록, 나에게 요구하시거나 시키실 때가 많다.								
27. 아버지(어머니)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시기를 좋아하신다.								
28. 손님이 오셨을 때와 보통 때 나에 대한 아버지(어머니) 태도는 다를 때가 많다.								
29. 아버지(어머니)는 하찮은 일로도 꾸중하시는 편이다.								
30. 내 의견을 묻지 않고 나에 관한 일을 아버지(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31. 아버지(어머니)는 하던 일은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32. 아버지(어머니)는 기분이 좋을 때 잘 해주시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뚜렷한 이유없이 야단치시곤 한다.								
33.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이라면, 우선 믿으시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4. 나에게 관련된 일이라도, 아버지(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신다.								
35. 아버지(어머니)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36. 아버지(어머니)는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간에, 이치와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37.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38.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일은 나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주시는 편이다.								
39.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아버지(어머니)는 엉뚱한 짓 한다고나무라실 때가 많다.								

문 항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머니께서는			
	거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0.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벌을 주실 때 대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41.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어머니) 는 거의 말상대를 해 주시지 않는 편이다.								
42.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때가 많다								
43.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수를 할까봐 걱정부터 하신다.								
44. 아버지(어머니)는 비록 어린이의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을 존중해 주신다.								
45. 내가 질문을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아시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애쓴다.								
46.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미리 아버지(어머니)의 허락 받아야 한다.								
47. 아버지(어머니)는 새로운 일또는 여행같은 것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48. 아버지(어머니)는 꼭 해야 할 일인데도,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내버려 두시는 편이다.								
49.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어머니)는 관심 갖고 들어주신다.								
50.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51.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								
52. 아버지(어머니)는 잘못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하실 때가 많다.								
53.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우선 화부터 내시는 편이다.								
54. 아버지(어머니)는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55. 아버지(어머니)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56. 아버지(어머니)는 가끔 적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								

문 항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머니께서는			
	거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7.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58.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이것은 안돼”, “어떤 일은 하면 못쓴다.” 등과 같은 말씀을 자주 하신다.								
59. 아버지(어머니)는 내 능력이나 힘에 좀벅찬 일이라도 나에게 해보라고 권장하시는 경우가 많다.								
60.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꾸중하시지 않고, 지나쳐 버리시는 일이 많다.								

뒷 면↷

*자아정체감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조금 해당된다	매우많이 해당된다
1.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2.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3.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다.					
4. 나는 일을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오래 가지 못한다.					
5.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6. 나는 모임에 나가면 가급적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7.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8. 나는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9. 나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10.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리는 편이다.					
12.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13.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처리한다.					
14. 나는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15.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스스로 잘 모르겠다.					
16. 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7.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18.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19.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20.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21. 나는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알고 있다.					
22.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편이다.					
23. 나는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24. 나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25.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26. 나는 이 세상일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7.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28.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29.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 보다는 따라가는 편이다.					

문 항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별로 해당되지 않 는다	어느쪽도 아 니 다	조금 해당된다	매우많이 해당된다
30. 나는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					
31. 나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2.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가 않다.					
33. 나는 장래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결정할 수가 없다.					
34.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35. 나는 결단력이 부족한 것 같다.					
36.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유별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37.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3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39. 나는 나 자신의 삶의 목표를 뚜렷이 정해 놓고 있다.					
40.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41.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42. 나는 각종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기꺼이 맡는 편이다.					
43.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만다.					
44. 나는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45.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46. 나는 남보다 잘 하는 일이 별로 없는 편이다.					
47.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이다.					
48. 나는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이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빠진 곳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세요****

(부 록 2)

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표 1>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양육태도 / 자아정체감	애 정	자 율	성 취	합 리
주 체 성	.28***	.20***	.23***	.20***
자기수용성	.37***	.25***	.34***	.36***
미래확신성	.20***	.11***	.20***	.16***
목표지향성	.27***	.16***	.25***	.23***
주 도 성	.23***	.26***	.26***	.29***
친 밀 성	.26***	.23***	.25***	.26***
자아정체감전체	.37***	.27***	.35***	.34***

***p<.001

(부 록 3)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표 2>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양육태도 / 자아정체감	애정	자율	성취	합리
주체성	.27***	.21***	.27***	.22***
자기수용성	.41***	.23***	.36***	.38***
미래확신성	.18***	.10***	.18***	.18***
목표지향성	.26***	.15***	.28***	.23***
주도성	.23***	.24***	.31***	.30***
친밀성	.24***	.17***	.28***	.24***
자아정체감전체	.36***	.25***	.38***	.35***

***p<.001

(부 록 4)

3.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표 3>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태도 \ 자아정체감 β값	주체성	자 기 수용성	미 래 확신성	목 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전 체
애 정	.25***	.13	.10	.15*	-.10	.07	.13
자 율	.10	.02	.00	.02	.15**	.08	.08
성 취	.05	.15*	.13*	.11	.13*	.09	.16**
합 리	-.08	.16*	-.00	.03	.19**	.11	.10
intercept	2.20	.57	1.66	1.20	.47	.73	1.14
F-value	11.41***	23.23***	5.72***	9.93***	14.16***	11.01***	22.36***
R^2	.09	.17	.05	.08	.11	.09	.16
D-W	2.01	1.9	1.88	2.00	2.01	1.99	1.90

*p<.05 **p<.01 ***p<.001

(부 록 5)

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표 4>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β값 / 양육태도	주체성	자 기 수용성	미 래 확신성	목 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전체
애정	.13	.20**	.08	.11	-.15*	-.03	.08
자율	.12*	.00	.01	.00	.12*	.04	.06
성취	.13*	.12*	.09	.18**	.22***	.21*	.22***
합리	-.02	.17**	.06	.05	.24***	.12	.15*
intercept	1.70	.15	1.46	.84	.02	.55	.78
F-value	12.63***	28.65***	5.37***	11.89***	18.81***	11.18***	25.73***
R^2	.10	.20	.04	.09	.14	.09	.18
D-W	1.98	1.92	1.93	1.98	1.97	1.94	1.88

*p<.05 **p<.01 ***p<.001